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매체 과목의 정체성

주재우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I. 문제의식
- II. '매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대응 양상
- III. '매체' 과목의 정체성 탐색: '지식·기능·태도'의 측면에서
- IV. 나가며: '매체' 과목의 발전을 위한 제언

I. 문제의식

본고는 국어 교과와 선택과목 중 하나인 '매체' 과목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언어'로 등장했다가 교과서 개발 없이 사라진 '매체'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으로 다시 나타났다. 이에 추상적인 문서인 교육과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 과목의 정체는 교과서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매체' 과목의 정체성은 교육과정과 그것을 상세화한 교과서를 분석해 봄으로써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국어 교과 내에는 '매체'와 동일한 위상으로 '작문', '독서', '화법', '문학', '문법(언어)' 등이 존재하며, 이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결합하면서 하나의 선택과목이 된다. 그럼에도 이들 각각을 하나의 과목으로 구분하려는 이유는 각 과목 사이의 결합이 화학적이라기보다 물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¹⁾ 즉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새롭게 각 영역의 이합집산이 가능하다는

1) 김창원·가은아·서영진·구본관·김기훈·김유미 외(2015: 177)에 따르면 '언어'와 '매체'

말이다. 그렇기에 본고는 비록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 확연하게 변별해 낼 수 있는 ‘매체’라는 영역을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매체’ 과목의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그 교육적 가치나 방향에 대한 비판이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어교육 내에서 매체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고²⁾ 그러한 연구가 교과서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매체 교육이 독립된 과목으로서(물론 ‘언어’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어떤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그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둘째, ‘매체’라는 과목의 국어 교과 내에서의 위상 파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어 교과 내에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그것이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선택과목이 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를테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전’이라는 과목이 등장하여 그 정체성이 도전을 받았듯이 2015 교육과정에서는 ‘매체’가 그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고 본다. 국어라는 교과에서 ‘매체’가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정체가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만약 위 두 가지의 목적, 즉 교육적 가치가 확인되며 국어 교과 내에 독립적 지위를 차지할 만한 과목이라는 점에 동의할 만하다면 ‘매체’라는 과목이 더 발전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이란 시대적 요구와 교과의 내적 논리로 개정을 거듭해 간다. 따라서 다음 시기의 교육과정 설계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라도 ‘매체’ 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매체’도 ‘언어’의 일종으로, 실제 생활에서 이 둘을 구별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합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도 통합할 때 이 정도의 이유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 2) 매체교육에 대한 연구사는 서보영·박진희(2019: 223-229)에서 크게 4가지 방향(매체 교육의 필요성, 매체의 본질, 국어과 제 영역과 매체의 관계, 매체 교육 실천)으로 정리되어 있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언어와 매체』 교과서는 2019년에 제작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팔목할 만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서보영·박진희(2019)는 ‘매체 언어의 구현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각 교과서들을 비교 연구했다. 특히 각 교과서의 구성 및 ‘언어’와 ‘매체’ 영역의 결합 양상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어떠한 제재들이 사용되었는지 밝혔다. 박준홍(2019) 역시 『언어와 매체』 교과서 중 ‘매체’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해’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이해의 틀’과 ‘매체 생산의 틀’을 상정해 두고 각 교과서가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고 나온지를 밝혔다. 한편 서혁·이흠·편지윤·변은지(2021)는 매체 교육 중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에 국한하여 그 단위 구성과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삼되, 본고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교과서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둔다. “이미 실현된 ‘교과서’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과정 항목들이 상세화되었는지 그 근원과 절차를 역추적”(주세형·남가영, 2014: 16)해 봄으로써 ‘매체’ 과목의 전모를 대략적으로나마 그려본 후,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분석은 다각도로 이루어질수록 좋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II. ‘매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대응 양상

2015 교육과정 중 ‘매체’ 과목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모두 10개로, 각각 매체의 본질,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에 대한 태도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성취기준 10개를 ①~⑩으로 연번을 붙여 보면 아래와 같다(향후 논의는 이 연번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

〈표 1〉 ‘매체’ 과목의 영역 및 성취기준(교육부, 2015: 109-116)

매체의 본질	[12언매01-03]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①
	[12언매01-04]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②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12언매03-01]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③
	[12언매03-02]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④
	[12언매03-03]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⑤
	[12언매03-04]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⑥
	[12언매03-05]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⑦
	[12언매03-06]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⑧
매체에 관한 태도	[12언매04-02]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⑨
	[12언매04-03]현대 사회에서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³⁾	⑩

한편, 2015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언어와 매체』 교과서는 “이삼형·김창원·양정호·안혁·하동원·박찬용(2019), 지학사; 최형용·강영준·권태윤·박재연·박종오·소신애 외(2019), 창비; 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조진수 외(2019), 천재교육; 이관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석·정지현 외(2019), 비상교육; 방민호·안효경·신서인·오현숙·이용광·김태경(2019), 미래엔”과 같이 전체 5종으로, 이들을 각각 대표저자와 출판사의 앞머리를 따서 ‘이지’, ‘최창’, ‘민천’, ‘이비’, ‘방미’로 지칭하기로 한다.⁴⁾

3) 원래 성취기준은 ‘언어와 매체 언어’, ‘언어 문화와 매체 문화’와 같이 ‘언어’와 ‘매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매체’와 관련된 부분만 취했고, 이후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서술할 것이다.

4) 이 표기 방식은 서보영·박진희(2019)를 따른 것이다.

〈표 2〉 ‘매체’ 교과서의 단위별 성취기준 배치 양상

이 지	매체의 본질	매체 언어의 특성과 위상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	표현의 창의성과 심미적 가치	매체로 만나는 너와 나	매체로 주고받는 정보	매체로 설득하다	매체로 빛은 예술	매체와 사회·문화	매체 생활의 성찰
	①	②	③	⑥	④,⑤	④,⑤	④,⑤	④,⑤	⑦,⑧	⑨,⑩
최 창	매체의 유형과 특성	매체 언어의 특성	매체 자료의 수용	매체 자료의 생산	매체 언어와 인간관계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매체 언어생활의 성찰	매체 문화 발전		
	①	②	③,④	⑤,⑥	⑦	⑧	⑨	⑩		
민 천	매체의 유형과 특성	뉴 미디어 시대의 복합 양식성	매체의 정보 구성과 유통	매체 언어의 창의성	매체 언어의 영향	매체 언어의 성찰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매체 문화의 향유	매체 자료의 생산	매체 문화의 발전
	①	②	③	⑥	⑦	⑨	④	⑧	⑤	⑩
이 비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	매체 자료의 수용	매체 자료의 생산	매체의 영향과 문화	매체 언어생활의 성찰				
	①,②	③,⑥	④	⑤	⑦,⑧	⑨				
방 미	매체의 유형과 특성	현대 사회의 매체 언어	매체에 따른 정보의 속성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매체 자료의 생산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	대중 문화의 특성과 주제적 향유	언어 생활의 성찰	매체 문화의 미래
	①	②	③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위 표는 교과서의 가장 작은 단위(보통은 소단원)를 기준으로 각 단위와 성취기준을 대응시켜 본 것이다. 대개는 하나의 단원에 하나의 성취기준이 대응하며, 총 10개의 성취기준이 10개의 단원으로 구현된다(‘민천’의 경우). 그러나 일부 두 개의 성취기준이 하나의 단원으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전체적으로 단원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최창’, ‘이비’의 경우). 반대로 하나의 성취기준이 여러 단원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예를 들어 ‘이지’의 ④, ⑤) 이러한 경우 단원의 수는 늘어나게 된다.

위 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0개의 성취기준이 만들어내는 지형도이다. 앞서 교육과정에서는 10개의 성취기준이 크게 3가지의 영역, 즉 ‘본

질, 탐구와 활용, 태도'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는데, 교과서 단원을 이에 맞추어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질'의 경우 ①과 ②의 성취기준을 순서에 따라 맨 앞에 배치하였고, '태도'의 경우 ⑨와 ⑩을 맨 뒤쪽에 배치하였다('민천'만 예외).

이에 본고는 '본질', '탐구와 활용', '태도'의 영역을 Bloom(1956/1983)의 『교육목표분류학』에서 말한 '지식(지적 영역), 기능(동적 영역), 태도(정서적 영역)'에 대응하여 매체 과목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틀로 삼고자 한다. 먼저 지식은 '이해'와 관련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핵심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다. 둘째, '기능'은 방법적 지식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영역으로 실제 그 목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나 도구 등으로 구체화된다. 셋째, '태도'는 경험이나 학습의 결과로 내재된 무엇으로 '흥미, 동기, 가치, 성찰, 윤리'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상 세 가지의 틀을 교육과정 성취기준,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한 교과서 내용과 대비해 보면서 '매체' 과목의 정체성을 탐색해 보겠다.

III. '매체' 과목의 정체성 탐색: '지식·기능·태도'의 측면에서

1. '지식'의 측면에서

'지식'의 측면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매체(언어)의 본질'이다. 이 본질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①과 ②이다. 성취기준 ①은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는데, 유형(類型)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묶어서 파악할 것인지가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매체의 사례로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교육부, 2015: 109)을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한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표 3〉 교과서별 매체의 유형 분류 양상

이지	최창	민천	이비	방미
분류 기준 • 기록 양식 • 정보 유형 • 전달 범위 • 소통 양상 • 목적과 기능	• 인쇄 매체 • 라디오, 텔레비전 • 인터넷 • 이동 통신 기기 • 뉴미디어	• 신문과 잡지 • 라디오, 텔레비전 • 휴대 전화 • 인터넷	• 전통적 전달 매체: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 뉴 미디어: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 인쇄 매체 • 음성 매체 • 영상 매체 • 뉴미디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단일하지 않다. ‘이비’의 경우 ‘전통적/새로운’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매체를 구분했지만,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여러 기준(특징)을 적용해 보면서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민천’에서는 “즉각적 피드백, 일대일 의사소통, 구어적, 시공간의 제약, 기록 보존 등”을 기준으로 매체를 구분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성취기준 ②는 ‘매체’가 아닌 ‘매체 언어’에 초점이 놓여 있고, 이 ‘매체 언어’의 특성은 말과 글, 다시 말하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 4〉 교과서별 매체 언어의 비교 기준

이지	최창	민천	이비	방미
• 정보 전달의 수단 • 시간의 범위 • 상황 의존성	• 시공간적 제약 • 일방향성 • 내용 보존 • 반응의 즉각성	• 실시간 상호작용 • 정보의 교환과 축적의 속도	• 실현 방식 • 대면 유무 • 시간의 제약	• 시공간적 제약 • 정보의 축적과 보존 • 정보 전달의 속도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체를 인쇄/음성/영상 매체와 같이 일정

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핌으로써 본질을 이해하도록 성취기준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매체의 분류와 특징 찾기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대표되는 국어활동에 앞서 음성 언어 혹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국어 활동의 본질에 주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위상을 갖는다. 그런데 국어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실제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예비적인 성격을 띠며, 정작 초점은 실제적 맥락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행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체’ 과목에서의 ‘본질’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띠며, 이로 말미암아 차별성이 나타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디어교육의 대표적 고전(古典)은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의 『미디어의 이해』이며, 이 책이 내세우고 있는 모토는 “미디어는 메시지다”이다. 다소 엉뚱하면서 파격적인 이 말은 의사소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용(콘텐츠)’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매체(미디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보통 관심이 매체보다는 내용에 쏠리기 마련인데, 매클루언은 내용보다 매체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름 아닌 미디어의 <내용> 때문에 그 미디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방해”(McLuhan, 1964/2002: 37)를 받는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현상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체’ 교과서 중 ‘최창’에서는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는 의미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31쪽)”이며, “매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고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41쪽)”는 마셜 매클루언의 말이 제시되어 있다. 이 지점이 국어교육의 타영역과 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말하기·듣기, 읽기·쓰기는 말이나 글이라는 매체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매체교육은 내용이 아닌 매체가 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는지 떠올려 보고, 왜 그 방식을 사용했는지 말해 보자.



〈그림 1〉 매체에 주목하도록 하는 활동

그러한 관점에서 위의 〈그림 1〉은 메시지가 아닌 매체에 주목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동일한 사과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경험 수준에서 매체를 메시지로 읽는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매체 자체가 만들어 내는 의미, 즉 메시지로서의 미디어에 비로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매체 지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매체교육 연구 초기부터 지적해 왔던 “저급한 수준의 평면적 이해”(김대행, 1998: 23)를 어떻게 벗어나는가이다. 매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학생들의 삶과 경험에서 동떨어진 지식은 매체교육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매체 교육의 의미와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매체’ 과목의 지식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뉴미디어’와 ‘복합 양식적 특성’이다. ‘뉴미디어’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12언매01-03])’을 이해하면서 함께 다루어야 할 개념으로 소개되어 있고, ‘복합 양식적 특성’은 ‘매체 언어의 특성([12언매01-04])’으로 언급되었다.

〈표 5〉 교과서에 제시된 ‘뉴미디어 및 복합 양식성’의 특성

	이지	최창	민천	이비	방미
뉴미디어의 특성	신속성, 대량성, 양방향성, 복합 양식성, 연결성	즉각적 상호작용	기술의 결합과 연결, 실시간 상호 작용, 정보의 교환과 축적의 속도, 세계화	쌍방향,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거나 나누거나 반응할 수 있음, 일상적인 말하기 특성이 높음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음, 신속, 대량 유통, 동시·비동시 의사소통, 대량 전달 + 면대면 + 간접 전달 모두 지님
복합 양식적 특성	음성과 문자를 바탕으로 하여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이 결합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의미를 만들어냄	음성이나 문자와 같은 언어 요소, 청각 요소, 공간 요소, 물질 요소, 시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의미를 구성	말, 그림, 몸짓, 음악 등의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

교육과정에서 이미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에서 매체는 ‘복합 양식적 특성을 지닌다’고 명시하였고, 이때 복합이란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지식을 단편적으로 확인하거나 매체 자료에 어떠한 요소들이 나타나는지 살피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리터러시를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복합 양식적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는 이미지, 소리, 제스처, 텍스트 등이 어우러져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역량이라는 점”(김아미, 2015: 64)을 매체 교육의 고유성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리터러시가 소화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매체 언어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체 교육이 지식 측면에서 지향해야 할 바이다.

전통적 리터러시와 구분되는 복합 양식적 리터러시를 이해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교과서 설명이 눈에 띈다.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은 단순히 다양한 요소를 사용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의 예고편에서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배우들이 함께 밝게 웃는 영상을 보여 주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보실래요?”라는 자막이 제시된다면, 우리는 각각의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따뜻한 가족애를 그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매체 언어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최창’ 37쪽).

복합 양식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체 언어에 어떠한 요소들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요소가 전체 의미를 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 양식성은 성취기준 ④의 ‘매체 자료 수용’이나 ⑥의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도 연결이 된다. 매체 자료에 사용된 시각·청각 요소의 쓰임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 모두 복합 양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림 2〉 복합 양식성을 이해하는 학습 자료

‘민천’, ‘방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광고 포스터 <그림 2>는 복합 양식적 특성을 이해하는 좋은 학습 자료로 보인다. 이 포스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리터러시를 넘어선 복합 양식적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괜찮아 안전해”라는 문자 텍스트가 거짓말을 환기시키는 피노키오의 대사와 결합하면서 의미를 생성해 내고 있다. 이처럼 매체 자료는 전통적 리터러시가 주목하지 않았던 글자의 위치나 크기, 시각적 이미지 등이 특정한 의미를 환기하면서 이 모든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온전한 메시지가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매체 교육의 ‘지식’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은 ‘본질’을 주목하였고, 교과서는 그것을 매체(언어)의 유형 분류와 특징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였다. 그 가운데 왜 매체를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복합 양식성’이라는 핵심 개념과 연결시켰다. 어떤 존재의 가치는 그것이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매체 교육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매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길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McLuhan(1964/2002: 54)은 “인류는 미디어의 충격을 무비판적, 순종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디어는 그 사용자를 벽 없는 감옥에 가두어버렸다.”라고 답한다. 따라서 매체교육에서 ‘지식’ 교육은 그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매체’에 대해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서 교육 내용을 구상할 때 평면적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매체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기능’의 측면에서

매체 교육에서 ‘기능’의 성격을 띤 영역은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으로 6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국어활동이 이해와 표현으로 짝을 이루듯, 매체 교육도 수용과 생산의 축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이와 관련

된 성취기준으로는 ④~⑥을 꼽을 수 있다.⁵⁾ 이 성취기준들을 상세화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살필 때 두 가지 점을 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식’ 측면과 마찬가지로 국어과 다른 영역과의 차별성이다. 이미 국어활동 중에도 매체로 읽고 쓰기 활동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수용’과 ‘생산’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매체 교육은 어떤 변별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용·생산과 관련하여 얼마나 강력하고 체계적인 절차, 이른바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이다. 매체의 수용과 생산은 학습자가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살펴볼 성취기준 ④는 ‘매체의 수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한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과서별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방법

	해당 매체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방법
이지	매체 일반	각 매체가 어떤 매체 언어를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하는지 살피기
	뉴스	다루지 않는 정보, 다른 관점의 뉴스 내용 구성하기 공정성과 정확성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광고	특징적인 표현을 찾아 설득 전략 파악하기
최창	신문 기사	드러난 내용 파악 및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 파악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판단

- 5) ③은 ‘기능’보다는 ‘지식’의 측면이 더 강하다.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언어의 측면, 정보의 양과 질,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 범위의 폐쇄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매체별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의 본질’에서 다룬 것처럼 매체 유형별 정보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내용들이 교과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⑦과 ⑧은 ‘기능’보다 ‘태도’와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3) 태도의 측면에서’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민천	매체 일반	출처는 어디이며, 생산자는 누구인가?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대상자의 관점은 무엇인가? 강조하는 정보와 누락된 정보는 무엇인가? 누구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가?
이비	드라마	단일한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기
방미	영상 매체	관점의 다양한 측면 예술적 작품성 vs 사회적 영향력 현실 반영 vs 새로운 세계 창조 작가의 의식과 감수성 vs 독자의 수용 태도나 방법

위 내용은 성취기준 ④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취기준은 박준홍(2019: 150)에서 지적한 것처럼 <읽기> 영역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와 차별성을 요구한다. 즉 ‘읽기’ 영역에서 이해의 방법은 ‘매체’ 영역에서의 수용 방법과 무엇이 다른지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매체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Buckingham(2003/2004)이 제시한 ‘제작(production)’, ‘언어(language)’, ‘재현(representation)’, ‘수용자(audiences)’라는 4가지의 관점을 참고해 보겠다.⁶⁾ ‘제작’이란 ‘누가 만드는가’의 문제이며, ‘언어’란 ‘어떤 형식의 언어를 사용하는가’이며, ‘재현’이란 ‘무엇이 포함되고 배제되었는가’이며, ‘수용자’란 ‘누구를 타깃으로 상정하였는가’이다. 이러한 매체 수용의 틀이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민천’에서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질문 목록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 버킹엄의 개념과 대응해 보면 다음과 같다.

6) 이 관점이 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반(수용과 생산)을 포괄하고 있지만, 특히 비판적 수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박준홍(2019: 134)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 7〉 ‘민천’ 교과서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점검표 분석

점검 목록	버킹업의 개념
매체 자료의 출처는 어디이며, 생산자는 누구인가?	제작
매체 자료의 대상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재현
생산자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제작
강조하거나 드러내려 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누락된 정보는 무엇인가?	재현
매체 자료의 내용은 누구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가?	제작

버킹업의 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로 ‘제작’과 ‘재현’의 문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언어’나 ‘수용자’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⁷⁾ 먼저 ‘제작’의 관점은 매체 자료를 만든 주체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존 이해 교육과 차별화를 둔다. 이해 교육에서는 보통 내용과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까지 다룬다면 매체 교육은 누가 만들었는지의 문제까지 나아간다. 즉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함으로써 단순한 의미 이해 차원을 넘어선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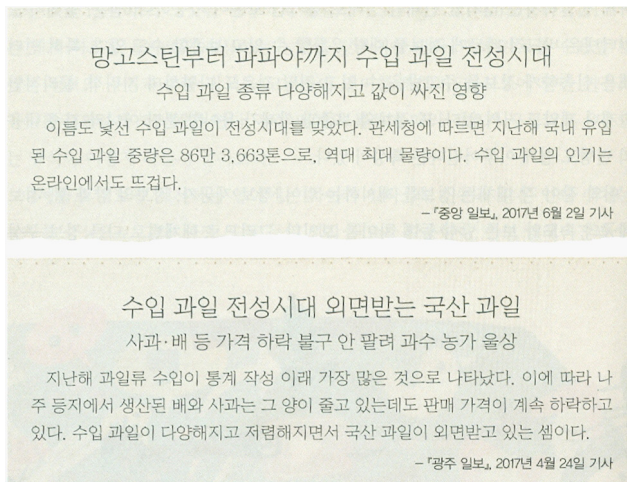
‘민천’의 학습 활동 중 ‘게임 중독과 게임 산업’을 다룬 ‘게임동아’와 ‘주간동아’ 두 잡지의 관점을 정리하고 비판해 보는 활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활동은 1) 각각의 기사 내용의 목적과 의도 파악, 2) ‘게임’과 관련된 관점 정리, 3) 내용의 사실성 타당성 판단, 4) 특정 집단과의 이해관계 판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3)까지는 읽기 교육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지만, 4)의 활동은 매체 교육만의 특징적 활동이다. 게임 산업을 두고 ‘게임동아’와 ‘주간동아’는 그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⁸⁾ 이와

7) 아마도 ‘언어’ 즉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는 다른 성취기준(⑥)에서 다루기 때문이며 ‘수용자’는 ‘예상 청중’이나 ‘예상 독자’와 같이 일반적인 국어활동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8) 박준홍(2019: 147)에서는 매체 교과서가 ‘제작’ 관점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본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제작’의 관점을 어느 정도 다루었다고 본다.

관련하여 “대중은 신문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정확한 정보로 여기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신문에 담긴 이념적 주장이나 가치, 혹은 왜곡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191쪽)”라는 추가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제작’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현’이란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어떤 작품을 ‘예술적 작품성’으로 볼 것이냐,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것이냐를 비교해 보는 활동이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준은 ‘읽기’ 영역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 매체 교육에서 ‘재현’이란 미디어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제작자나 기관의 의도가 투영된 형식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다”에 초점을 둔다. 즉 생산자가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것’,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는 것’, ‘전형적인 것과 진실에 가까운 것’ 등을 파악해 보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김아미 2015: 29-30).



〈그림 3〉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한 제재

이와 관련하여 〈그림 3〉은 두 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데 하나는 ‘수입 과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최창’ 136

쪽). 수입 과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할 경우 국산 과일의 부정적인 면이 감추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여기에서 제작자가 현실의 어느 면을 부각할 것인지에 따라 배제되거나 침묵하는 대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교육 자료이다.

일찍이 김대행(1991: 75)에서는 소련 공산당 기관지가 “감자의 풍작”을 보도하면, 곧 “귀리의 흉작”으로 읽어낸다는 우스갯소리를 소개하면서 “감춤과 드러냄의 문학적 선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은폐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운데 일부만을 표현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체 교육은 다양한 관점의 존재 파악이나 그러한 관점을 비교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의미까지 파악하여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생산’의 측면을 살펴보겠다. 먼저 성취기준 ⑤는 ‘매체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크게 세 범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i)소통의 목적(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ii) 수용자의 특성(연령, 성, 수, 배경지식, 관심사), iii) 매체의 언어적 특성과 파워’이다. 이 가운데 i)과 ii)는 일반적인 말하기·쓰기 교육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바, 매체교육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교육 지점은 iii)이라 할 수 있다.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매체를 선택(‘최창’)해야 하며,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는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방미’)” 한다는 지점은 매체의 의미 실현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교과서에 제시된 매체 생산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교과서별 매체 생산 방법

	예시 주제	매체	매체 생산 방법
이지	인터넷 학급 신문	인터넷 신문	사진 및 그림, 도표 및 통계, 동영상, 문서의 수집 후 편집
	학교 홍보 광고	매체 미정	일반적 광고 전략
	일상생활을 랩으로 표현	뮤직 비디오	가사 쓰기, 역할 분담, 스토리보드 작성
최창	할머니께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 알려주기	인쇄 자료	비격식체, 개인정보 노출 주의, 시각적 구조화
민천	자선 장터에서 판매할 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포스터 및 인쇄물	작년 행사 사진 활용
		동영상	작년 행사 영상, 자막, 해설, 배경 음악 활용
이비	미세먼지에 관한 뉴스	카드 뉴스	이미지와 짧은 글로 장면 구성
방미	전학 가는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기	모바일 메신저	-

그런데 ‘생산’과 관련한 매체 교육의 중요한 문제는 가르쳐야 할 교사가 이미 익숙한 학습자를 교육해야 한다는 점(김향연, 2018)에서 발생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기성세대 교육자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미디어활용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회적 담론”(김아미, 2015: xii)을 볼 때 교사가 학생에게 과연 어떠한 미디어 생산 능력을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기성세대가 만든 교과서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가르친다면 흥미를 떨어뜨릴 것이고, 교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다룰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영상물을 만들 경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으로 ‘스토리보드 작성’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지’는 가장 상세하게 그 개념과 방

9) 박준홍(2019: 152)에서는 “스토리보드 작성이 다양한 언어 양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스토리보드가 ‘보는 사람이 주요 흐름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이지’ 186쪽)라고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시각 이미지 칸에 보여 줄 장면을 간단히 스케치함
2. 장면에 맞는 소리나 음악, 대사, 자막을 적음
3.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찍을지 촬영 정보를 메모함

대개의 경우 스토리보드의 한 사례를 보여주거나 스토리보드 작성 양식을 제시해 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작성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만 여전히 그것이 과연 학생들의 매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절차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성취기준 ⑥은 ‘수용’과 ‘생산’의 두 측면을 함께 다루고 있다.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 이해’ 두 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창의적 표현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9〉 교과서별 창의적 표현 방법 및 예시

	창의적 표현 방법	예시
최창	다양한 요소 복합적 활용	‘지진 바로 알기’ 광고 - 소리, 자막, 이미지, 내레이션 활용
민천	언어 그 자체의 특성(동음이의어, 발음의 유사성, 대구와 비유 등)	갑과 을의 갈등 문제에 대해 ‘우리는 동갑입니다’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활용	안전 불감증 문제 - 거짓말하는 피노키오의 길어진 코(작업 나사)

생산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매체 텍스트 생산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방미	널리 알려진 작품 패러디	동화 작품 '피노키오'에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의 길어진 코(작업 나사)
	언어유희	광고 문구 - 새우의 자존심을 세우다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광고 문구 - 청춘하세요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창의적 표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언어적 특성에서 찾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복합 양식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동음이의어나 발음의 유사성, 대구 등을 활용하며, 후자는 “함축적인 문구와 그림, 대사”를 사용한다거나 “말과 그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 소개되어 있다. ‘최창’의 경우 “창의적 표현 방법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과 사물을 관찰한 경험이나 연상에서부터 비롯(149쪽)”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미적 가치 이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은 소략하다. “주제와 잘 어울려 질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게 하기도 한다(‘민천’)”, “매체 자료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표현을 사용하면 생산자의 의도를 잘 인지할 수 있고 나아가 심미적 가치도 느낄 수 있다.(‘최창’)”고 했다. 심미적 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방미’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감각적·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심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문학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매체 언어는 오랫동안 인간이 향유해 온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매체 언어를 통해 구성되는 자료와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의미들은 문학 작품을 읽듯 비유나 상징, 풍자나 패러디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의미를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다(‘방미’ 161쪽).

이 교과서에서는 매체나 문학이나 심미적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심미적 가치가 드러나

는 반면, 영상 매체인 영화는 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 음악, 촬영 각도, 장면의 배열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심미적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였다(‘이비’ 155쪽).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교실을 떠나는 키팅 선생님을 위해 책상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장면을 들었다. 이 장면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구도로 화면에 담았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성장한 학생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공감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방미’ 162쪽). 이 같은 사례는 매체 언어만의 심미적 가치를 주목한 사례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창의적 표현 방법은 언어적 창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매체 언어의 창의성은 복합 양식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상제화하였다. 매체의 심미적 가치는 문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역시 복합 양식적 특성에서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3. ‘태도’와 관련하여

성취기준 ⑦과 ⑧은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에 속해 있는 성취기준이나 본고는 ‘태도’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태도’ 영역으로 구획된 성취기준은 ⑨와 ⑩인데 이는 ⑦, ⑧과 연계해서 설명할 때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성취기준 ⑦과 ⑨를 묶어서 살펴보겠다. 성취기준 ⑦은 매체로 인해 의사소통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 그것을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구분하고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탐구하라는 내용이다. 즉, 매체가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때 매체란 앞서 언급한 인쇄매체나 대중매체를 가리키기보다는 뉴미디어를 가리킨다. 쉽게 말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0〉 교과서별 매체(언어)의 영향 관련 내용

	소통 양상의 변화	인간관계 영향	사회생활 영향
최창	대면 소통의 특성 강화 구어/문어, 규범/비규범, 높임/낮춤의 혼용 공/사적 소통 구분 모호 여론 형성의 주체 확대(전문가→일반인)	인맥의 확대 → 진정한 관계인지는 의문 대면 소통 축소 → 좋은 관계 유지 노력 축소	
민천	일대일에서 다차원적 소통 복합적 요소 사용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	소외 지역 교육, 민주적 소통 문화 가짜 뉴스, 계층별 언어 형성, 차별 표현
이비	매체에 따라 파급력 상이 복제·재생산 가능	근거 없는 비방 저작권 문제	
방미	개인적 소통과 사회적 소통의 구분이 모호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되며 영향력이 커짐		

한편 성취기준 ⑨는 ‘매체 언어생활에 대한 반성’을 다루고 있다. 이 반성은 언어생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에서 출발하는데, 이때 문제점이란 성취기준 ⑦에서 다루었던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반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주목하게 된다. ⑨와 관련한 매체 언어생활에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 11〉 교과서별 매체 언어생활의 문제점 관련 내용

	매체 언어생활의 문제점
이지	사이버 불링, 댓글 예절, 저작권 보호
최창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의 혼동, 명예 훼손·모욕 등의 폭력 문제, 저작권 보호
민천	정제되지 않은 언어, 상처 주는 표현, 정보의 출처 밝히기, 해킹·바이러스 등 주의, 저작권 보호
이비	무례한 표현, 욕설하지 않기
방미	욕설, 비속어, 은어, 무례한 표현, 과장, 거짓

성취기준 ⑦에서 언급한 매체 언어의 부정적인 영향과 성취기준 ⑨에서의 언어생활의 문제점은 교집합이 많으며,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⑦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매체 언어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탐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성취기준은 상관성이 높다.

두 번째로 성취기준 ⑧과 ⑩을 묶어서 살펴보겠다. 성취기준 ⑧은 ‘대중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대표되는 대중 매체가 형성한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과 비교해 보면 교과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상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2〉 교과서별 대중문화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비교 관련 내용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교육과정 해설	대량 전달력, 큰 영향력	상업성, 통속성,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제약
이지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	상업성, 통속성, 이념적 제약
최창	문화 향유의 균등, 여가시간의 즐거움 제공, 사회화 기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 문화 범위 확장, 사회적 관계 확장, 예술의 재평가	수용자는 수동적, 정치권력의 통제, 경제 권력의 장악,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침
민천	대량 전달력(위급 상황 경고, 일상 정보 제공), 오락적 기능, 풍요로운 여가 생활, 사회적 논제	의식 전반에 영향, 상업성(통속적, 선정적, 획일성), 지배적 가치나 이념
이비	대량 전달력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	상업적 성격, 상투성과 통속성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방미	삶의 활력, 스트레스 해소, 지식이나 정보 빠른 획득, 사회적 문제 관심, 여론 형성	상업성, 통념 답습, 지배적 가치 반영

한편 성취기준 ⑩은 ‘매체 문화 발전에 참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

〈표 13〉 교과서별 매체 문화 발전 관련 소재

	매체 문화 발전 관련 소재
이지	저작권(불법 복제) 문제
최창	재스민 혁명,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1인 미디어 등
방미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한국 영화, 소설, 음악

이와 관련해서 ‘최창’이 가장 풍부하면서 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여론이 형성되고 널리 퍼진 사례로 ‘재스민 혁명’을 소개하였다. 언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매체 언어가 현대 사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편, 집단 지성의 원리가 인터넷 상에서 발휘되고 있음도 소개하였다. ‘위키피디아’나 ‘우리말샘’과 같은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은 지식의 폭도 넓히고 정보의 공유도 쉽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한편, 1인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소재가 다양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접근성이나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반면에 왜곡된 정보가 소통되거나 상업성이나 비윤리적 목적의 사용 등의 부작용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매체가 만들어 낸 새로운 문화의 빛과 그림자를 인식하고 특히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여 문화 발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성취기준 ⑧에서 다루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와 향유의 태도와 연결이 된다.

매체 교육의 ‘태도’ 측면에서는 주로 매체 사용으로 발생한 언어생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극복하기를 주문한다. 그러나 문제 개선을 위한 태도 교육이 “너무 교훈적이면 안 된다”는 미디어교육 연구자들의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호주

의적 관점'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방식이 결국 학생들에게 교사가 원하는 답을 하게 하지만 정작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김아미, 2015: 10-13; 윤여탁·최미숙·김정자·정현선·송여주, 2008: 269-272).

그렇기에 매체 언어와 그로 인해 파생된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 저급한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극복하도록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이 미디어를 읽고 쓰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성찰하면서, 제시된 이론(핵심 개념)을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 반대하고 바꾸어 보기도 하는 메타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김아미 2015: 23)이 필요하다. 이미 친숙해서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매체 언어생활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천’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체 언어생활 보고서(144쪽)”나 “나의 매체 생활 관찰 보고서(248쪽)”는 태도 형성에 적합한 활동이라 판단된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 내가 생산하는 매체, 그 매체 자료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파악해 보는 활동은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매체와 관련된 비판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IV. 나가며: ‘매체’ 과목의 발전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 교육과정이 ‘본질’, ‘탐구와 활용’, ‘태도’로 영역 구분이 되어 있는바, 이를 ‘지식’과 ‘기능’, ‘태도’라는 측면에서 그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식’과 관련해서 매체(언어)의 유형과 특성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매체’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다. 매체 자체가 의미를 구성하므로 ‘내용(콘텐츠)’과 대비되는 ‘매체(미디어)’를 인식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어교육 과목과 차이가 있다. 지식과 관련한 핵심

개념인 뉴미디어의 복합 양식성이라는 특징 역시 평면적 이해에서 벗어나 매체 자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어떠한 의미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었다.

둘째, ‘기능’과 관련하여 매체의 수용과 생산의 방법을 살폈다. 먼저 매체 수용과 관련해서는 국어활동에서 주목하지 않는 제작의 주체, 감춤과 드러냄의 재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생산의 측면에서는 매체의 의미 실현 방법에 초점을 두고 매체 생산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이나 심미적 가치 이해는 언어의 특성이나 문학 감상과 유사성이 많으나 매체의 복합 양식적 특성 면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셋째, ‘태도’와 관련해서는 매체(언어)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나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부분들을 탐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언어)의 영향력에 대한 탐구’, ‘(대중) 매체가 형성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태도’ 영역은 ‘기능’ 영역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한 거리두기와 메타적 인식이 필요하며 이는 매체 관찰 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실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향후 ‘매체’ 과목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먼저 ‘지식’과 관련해서는 ‘매체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 요구된다. “매체에 둘러싸인 생활은 확실히 쾌적한 것이지만, 당연히 폐해도 있기 때문이다. 매체가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분을 의식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야 할 것이다(이시다 히데타카, 2016/2017: 171, 228).” 이를 위해 “학생들의 체험적 지식을 공적 지식으로 변환”(김아미, 2015: 60)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매체 생활은 학습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심지어 일체화되어 있다. 매체 교육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체가 자신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의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공적인 지식으로서의 핵심 개념이 요구된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인쇄/전자/대중 매체, 복합 양식성’ 등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교과서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하고 정교하며 본질적인 개념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온라인상의 백과사전을 사용할 때는 ‘집단 지성’을, 뉴스나 신문을 읽을 때는 ‘프레임링’을,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알고리즘’ 등의 지식을 통한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지식’보다는 ‘보는 지식’에 더 초점이 놓여야 한다고 본다(이흥우, 2001: 149-162). 전자는 실생활에서 쓰임이 있는 실용 지식인 반면, 후자는 현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설명적 지식이다. 이흥우(2001)는 ‘하는 지식’의 경우 필요한 사람이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반면, ‘보는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배울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대 매체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능력은 디지털 세대인 학습자가 가르치는 교사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 이때 학교 교육으로서의 매체교육이 학습자를 능가하도록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매체 연구자들이 하는 일,¹⁰⁾ 즉 매체를 이해하고 의식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질 때 매체를 향유하는 주체적이면서도 반성적인 태도도 아울러 길러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미룬다.

* 본 논문은 2021. 8. 6. 투고되었으며, 2021. 8. 15. 심사가 시작되어 2021. 9. 13. 심사가 종료되었음.

10) 이와 같은 사례로 이시다 히데타카라는 미디어 연구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학자는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인간의 정신 자체가 컴퓨터화되고 있는 현상을 학자의 눈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시다 히데타카, 2016/2017 참조).

참고문헌

1.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조진수·박진희(2019), 『언어와 매체』, 서울: 천재교육
방민호·안효경·신서인·오현숙·이용광·김태경(2019), 『언어와 매체』, 서울: 미래엔
이판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석·정지현·하성욱(2019), 『언어와 매체』, 서울: 비상교육
이삼형·김창원·양정호·안혁·하동원·박찬용(2019), 『언어와 매체』, 서울: 지학사
최형용·강영준·권태운·박재연·박종오·소신애·송찬옥·오세호·임요한(2019), 『언어와 매체』, 파주: 창비

2. 논저

김대행(1991), 『시가 시학 연구』,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김대행(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7-44.
김아미(20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창원·가은아·서영진·구본관·김기훈·김유미·김잔디·김정우·김혜정·류수열·민병곤·박기범·박영민·박재현·박정미·송승훈·안부영·양경희·오리사·이선희·이재승·장은주·전은주·한연희·이지은(2015), 『국어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형연(2018),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매체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3(3), 89-114.
박준홍(2019), 「매체 언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람어문교육』 72, 129-159.
서보영·박진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 비교 연구 - ‘매체 언어’의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7, 219-269.
서혁·이흠·편지윤·변은지(2021), 「교과서 속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구현 양상 분석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학습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8, 143-167.
윤여탁·최미숙·김정자·정현선·송여주(2008),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시다 히데타카(2017),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윤대석(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원서출판 2016).
이흥우(2001), 『증보 지식의 구조와 교과』, 서울: 교육과학사.
주세형·남가영(2014), 『국어과 교과서론』, 서울: 사회평론.
Bloom, S. B. (1983), 『교육목표분류학 - 교육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임의도·고종렬·신세호(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56).
Buckingham, D. (2004), 『미디어 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기선정·김아미(역), 서울: 제이앤북(원서출판 2003).

McLuhan, M. (2002),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성기·이한우(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1964).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통해 살펴 본 매체 과목의 정체성

주재우

본고는 고등학교 ‘매체’ 과목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 2015 교육과정과 이를 구현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이 ‘본질’, ‘탐구와 활용’, ‘태도’로 영역 구분을 하고 있는바,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살폈다. 먼저 지식의 측면에서는 매체와 매체 언어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내용(콘텐츠)과 대비되는 매체(미디어)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복합 양식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기능’의 측면은 수용과 생산으로 구분되는데, ‘수용’과 관련해서는 제작의 주체, 드러냄과 감춤이라는 재현의 문제가 특징적이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매체의 의미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이나 심미적 가치 이해는 종전의 국어교육과 유사성이 많으나 복합 양식적 특성 면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끝으로 ‘태도’ 측면은 매체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나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핵심어 매체 교육, 매체 교과서, 정체성, 지식, 기능, 태도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of “Media” subjects focused on high school language and media textbooks

Joo Jaewoo

This study analyzes language and media textbooks, which were implemented with the 2015 curriculum, to explore the identity of high school media subjects. The curriculum is based on “essen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 and “attitude.” This study examines the textbooks in terms of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based on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In terms of knowledge, the focus of the curriculum is on identify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edia and media language. They emphasize the meaning of the media that contrasts with its content and presents multi-modal characters as a key concept. In terms of function, they are divided into consumption and production. When consuming media, the curriculum examines who produced it and what it hides; in media production, they focus on what the media means. In the processes of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media, differentiation is made between the multi-modal characters and traditional Korean education. The tone of the textbooks includes a look a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edia or the dark side of popular culture, and they present an attitude that can improve these effects.

KEYWORDS Media Education, Media Textbook, Identity, Knowledge, Skill, Attitude.